

최근 데이트 폭력 문제나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이데일리, 2018.05.02.; 한겨레신문, 2018.01.30). 이러한 성 문제의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 성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에 기인한다(유외숙, 2004).

한편 초기 성인기에 접어드는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인식과 경험은 차세대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난희, 정준식, 송혜숙, 2016). 대학생들의 성의식을 알아보고자 했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54명 중 82.9%가 자신의 삶에서 성생활이 중요하고, 62.1%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 대학생의 89%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시사저널, 2011.11.30.; 중앙일보, 2014.05.21.). 이렇게 대학생들 사이의 성에 대한 인식 및 성문화는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반해 왜곡된 성인식에 기반한 성희롱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7.11.15.).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쌓게 되면, 이성관계에서 성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손승연, 임성문, 2011).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성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될 경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이성관계에서도 유사한 문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이경인, 2015; Impett & Peplau, 2002; Shotland & Hunter, 1995).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성경험, 성태도, 성지식 및 성교육 등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며(박선미, 송원영, 2012; 유외숙, 박경, 2004), 데이트 폭력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 즉 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자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이난희 등, 2016). 데이트 폭력이나 미투 운동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시점에야 성적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본 연구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떠한 요소들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며,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 것은 성문제와 관련한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는 사후적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기존중감이나 성인애착,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관련지어 연구되어져 왔다(박선미, 송원영, 2012; 손승연, 임성문, 2011;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즉,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우울할수록,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응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외숙, 2004). 변혜정(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 시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에 대한 반응유형을 주장형과 순응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했던 조정화, 송원영(2017)의 연구에서는 주장형 집단에 비해 순응형 집단이 성경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경험이 많았다. 순응형 집단은 애착이 불안정하고, 거절민감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성적 자기주장을 힘들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의 한 형태인 이성관계는 매우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며(이경인, 2015), Erickson(1963)은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 형성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말한다.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애착이론을 통해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의 성적 자기주장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애착이론을 전제로 하여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박희경, 2011; 안하얀, 2009)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Bowlby(1969)는 한 사람이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애착은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주된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은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인 내적표상을 갖게 되는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갖게 된다. Hazan과 Shaver(1987)가 제시한 불안정 애착 유형에는 회피형과 불안/양가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제로 한다.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 상

황을 극복하고자 이성 관계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부정적 대처전략일 경우가 많으며,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짐으로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박희경, 2011). 갈등해결전략을 제시한 Rahim과 Bonoma(1979)에 따르면, 부정적인 전략으로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이 있다. 회피전략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도 관철시키고자 하지 않는 것이고, 지배전략은 자신의 주장 관철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양보전략은 상대방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우위에 두어 상대방에게 순응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애착관계와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남성과 여성에 따른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불안정 애착이 높은 남성은 불안정 애착이 높은 여성에 비해 회피전략을 더욱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꺼려 철회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Levinson & Gotman, 1985). 반면, 여성들은 관계유지를 위해 남성들보다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피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남성들에 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rra & Longstreth, 1990). 즉, 불안정 애착을 가진 여성들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남성에 비해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며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전략으로 양보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은 한 사람이 어린 시절 주요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 인지절차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거울이다(권진희, 2016). 어린 시절 자신의 욕구가 중요한 상대방으로부터 민감하고 세심하며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충족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불안정 애착유형인데,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진 사람들의 대인관계 양태가 불안정 애착유형에 속하는 이들의 갈등해결전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박희경, 2011).

즉, 거절민감성 개념을 정립한 Downey 등 (1996)은 어린 시절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 것이라는 염려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단절 및 거절 도식도 초기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타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틀에 들어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절민감성이나 단절 및 거절도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큰데, 이는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거절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소소하고 모호한 단서에도 예민하게 거절로 지각하며 거절에 대해 과잉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Downey & Feldman, 1996). 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수용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김나영, 조유진, 2009).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낙하는 여성들의 경우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향후 거절을 경험할 것이라는 불안감 즉, 이번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예측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갈등해결책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다(변혜정, 2004; 유외숙, 2004).

한편 단절 및 거절도식은 생애 초기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경험하면서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불안정 애착유형의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우주영, 2015). 단절 및 거절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돌봄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며, 그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공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우주영, 2015). 이러한 영역에 해당하는 도식은 다섯 가지로, 유기/불안정 도식, 불신/학대 도식,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함/수치심 도식,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이 이에 속한다(권진희, 2016). 거절민감성 뿐만 아니라 단절 및 거절 도식 또한 개인이 가진 정서적, 인지적 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틀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권진희, 2016). 단절 및 거절 도식이 큰 사람일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김지현, 2015), 결혼만족(표미림, 2014), 대인관계(정예원, 2014) 등 대인관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단절 및 거절도식이 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단절과 거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하다(안하얀, 2009). 이성관계에서 상대방과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성정아, 홍혜영, 2014). 이성관계에서도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상충될 경우 상대방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박희경, 2011) 성행동과 관련된 갈등상황에서 거절민감성과 비슷하게 양보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클수록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요구할 때 성적 자기주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자기주장의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거절민감성이 단절 및 거절도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성적 자기주장에 이르게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Pietrzak, Downey, 그리고 Ayduk(2005)에 따르면, 거절민감성은 단절 및 거절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민감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들은 사소한 단서에도 거절의 위협을 지각하고 이에 대한 방어적 동기화 체계를 작동시켜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박민숙, 2014). 또한, 특정 상황에서 거절민감성이 촉발되면 단절 및 거절도식과 같은 심리적 도식을 활용하여 그에 맞는 현상을 지각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박민숙, 2014; 이인태, 2017). 이와 비슷하게,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

려움으로 인해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2009). 거절민감성이 큰 사람들은 초기 애착대상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이나 관심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여김으로서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가 상충될 경우 상대방의 욕구에 순응하는 행동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박희경, 2011; 성정하, 홍혜영, 2014). 한편, 유외숙(2004)에 의하면 데이트 과정에서 애착불안이 높은 이들은 성관계의 협상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 억제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거절민감성이 단절 및 거절도식에 영향을 미치고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거절민감성과 성적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를 발견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이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에 착안하여 이성교제 경험 및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대생과 없는 여대생들 사이에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성교제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이란 점에서 불안정 애착과 관련지어 설명이 가능하다. 불안정 애착은 이성관계의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성관계의 시작부터 영향을 미친다(성정아, 홍혜영, 2014). 나보

영(2008)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거절민감성이 높거나 단절 및 거절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타인과의 관계 시작 및 유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나 자기 노출을 어려워한다(성정아, 홍혜영, 2014). 친밀감 형성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정운경, 2004), 향후 이성관계의 종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Thelen, Vander, Thomas, & Harmon, 2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여부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관계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교제 시에 성관계 빈도가 높아질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혜정, 2004).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여성에게 그 남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 서로에게 인식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그 이후의 성관계 거절은 내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주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변혜정, 2004). 반면,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 빈도에 따른 자기주장을 살펴본 이선경(2000)의 연구결과는 좀 더 복잡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만남의 횟수에 따라 성 접촉 수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한 여학생들은 성적 자기주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성관계를 한 그룹과 10회 이상의 만남 후에 성관계한 그룹의 자기주장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10회 이상의 만남 후에 성관계를 한 그룹의 평균이 2회에서 9회까지의 만남에서 성관계를 한 그룹의 자기주장 평균값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단순히 성관계 경험 여부와 성적 자기주장 사이의 관계를 선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변인들의 영향도 존재할 것이라 결론내리고 있다(이선경, 2000).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성관계 경험여부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와 더불어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차이를 검토해볼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는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 및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거절민감성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성교경험 유무에 따라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여자 대학생 2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 8명의 설문을 제거하고, 총 252개의 설문 응답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이성교제 횟수, 성관계 경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5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18~20세	182	72.2
	21~25세	59	23.4
	26~29세	11	4.4
이성교제 횟수	없음	49	19.4
	1회	34	13.5
	2회	41	16.3
	3회	39	15.5
	4회 이상	89	35.3
성관계 경험여부	없음	168	66.7
	있음	84	33.3
합계		252	100.0

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도구

거절민감성

Downey & Feldman(1996)이 개발한 거절민감성 설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이복동(2000)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했다. 이 질문지에서는 거절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 초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염려되거나 불안한가의 여부(거절불안 문항)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의 여부(수용기대 문항)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6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리커트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거절민감성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관한 거절에 대한 불안점수와 수용기대 점수의 곱 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요구 거절 불안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높은 것이고, 요구 수용 기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분석을 위해 요구 수용 기대 문항은 역채점한 값을 사용하였다. Downey 등(1996)의 연구에서 질문지의 신뢰도는 .83으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거절민감성에 대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단절 및 거절도식

이미열(2006)이 Young의 도식질문지 단축형(YSQ-SF)를 번안하여 15개 도식을 측정하는 75 문항의 한국판 단축형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열(2006)이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질문지 중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 25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 5문항씩 정서적 고통,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합/수치심 도식을 (1점) ‘완전히 다름’에서부터 (6점) ‘완전히 일치’의 6점 리커트척도 상

에서 평점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단절 및 거절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엘(2006)의 연구에서 질문지의 신뢰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에 대한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은 Patricia, Kathryn, Lisa, Laura, Diane, Pamela & Gary(1997)가 개발하였으며 최명현(2005)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했다. 원래 척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하는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것,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것, 일정한 파트너와의 성교에서의 임신과 성병 예방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요인은 삭제하고, 성적 접촉 거절 요인과 임신 및 성병 예방 요인을 각각 6문항씩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거절 요인에서는 거절한다는 문항 3개, 거절하지 않는다는 문항 3개, 예방요인에서는 예방한다는 문항 3개,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 3개가 있는데, 거절한다와 예방한다 문항은 각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는 것이고, 거절하지 않는다는와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와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명현(2005)의 연구에서 질문지의 신뢰도는 .8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 값을 산출했다. 둘째, 이성교제 경험, 성교 경험에 따른 여대생들의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셋째,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거절민감성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8.04(SD=3.48),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9.62(SD=3.91)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1.98(SD=0.74),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2.24(SD=0.95)인데 이러한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t=-2.77, p<.01$), ($t=-2.10, p<.05$)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은 더욱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절 및 거절도식을

표 2.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 (N=252)

구분	있음	평균	표준편차	t
	없음			
거절민감성	있음(N=203)	8.04	3.48	-2.77**
	없음(N=49)	9.62	3.91	
단절 및 거절도식	있음(N=203)	1.98	0.74	-2.10*
	없음(N=49)	2.24	0.95	
성적 자기주장	있음(N=203)	4.46	0.62	-1.69
	없음(N=49)	4.62	0.54	

* $p < .05$, ** $p < .01$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적자기주장에서는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t = -1.69$)으로 나타났다.

성교경험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여대생의 성교경험에 따라 연구변인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의 표 3에 제시하였다. 거절민감성은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8.04 (SD=3.87),

성교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8.50 (SD=3.49)로, 단절 및 거절도식에서는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2.09(SD=0.84), 성교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2.01(SD=0.76)인데 이러한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t = -.96$, ($t = .77$))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자기주장에서는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4.11(SD=0.68), 성교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4.68(SD=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t = -7.87$, $p < .001$)이다. 이를 통해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은 성교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에 비해 성

표 3. 성교경험 유무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 (N=252)

구분	있음	평균	표준편차	t
	없음			
거절민감성	있음(N=84)	8.04	3.87	-0.96
	없음(N=168)	8.50	3.49	
단절 및 거절도식	있음(N=84)	2.09	0.84	0.77
	없음(N=168)	2.01	0.76	
성적 자기주장	있음(N=84)	4.11	0.68	-7.87***
	없음(N=168)	4.68	0.45	

* $p < .05$, ** $p < .01$, *** $p < .001$

적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 하위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 간 관계는 $r=.48(p<.01)$ 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은 $r=-.19(p<.01)$,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은 $r=-.38(p<.01)$ 로 나타나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해석기준이 있고,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한 적절한 적합도 지수의 선정이 중요하므로, 비표준부합치(TLI: Tucker-Lewis),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 잔차제곱평균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았다

표 4.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도식, 성적 자기주장 사이의 상관관계 (N=252)

변인	1	1-1	1-2	2	2-1	2-2	2-3	2-4	2-5	3	3-1	3-2
1. 거절민감성	1											
1-1. 거절불안	.88**	1										
1-2. 거절기대	.75**	.45**	1									
2. 단절도식	.48**	.36**	.52**	1								
2-1. 정서적결핍	.47**	.32**	.48**	.81**	1							
2-2. 유기/불안정	.42**	.32**	.41**	.83**	.58**	1						
2-3. 불신/학대	.36**	.27**	.41**	.83**	.52**	.63**	1					
2-4. 고립/소외	.38**	.29**	.44**	.85**	.67**	.56**	.65**	1				
2-5. 결함/수치심	.43**	.30**	.47**	.88**	.66**	.63**	.66**	.75**	1			
3. 성적자기주장	-.19**	-.18**	-.25**	-.38**	-.32**	-.31**	-.29**	-.40**	-.29**	1		
3-1. 성적접촉거절	-.27**	-.23**	-.28**	-.38**	-.32**	-.36**	-.25**	-.39**	-.32**	.88**	1	
3-2. 성적질병예방	-.08	-.08	-.16*	-.30**	-.25**	-.26**	-.26**	-.33**	-.20**	.86**	.58**	1

* $p<.05$, ** $p<.01$

(홍세희, 2000). χ^2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너무 쉽게 기각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평가에 참고하고자 하였고 유의확률이 $p > .05$ 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TL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64, CFI=.976, RMSEA=.064, $\chi^2=48.556(df=24)$ 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부하량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0.6 이상으로 나타나($p < .001$), 측정변인들이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아보았는데,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r=.67, p < .001$)이었고,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은 유의한 부적 상관($r=-.38, p < .001$),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도 유의한 부적 상관($r=-.46, p < .001$)으로 나타나, 잠재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분석

연구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거절민감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여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거절민감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본 연구 자료에 더욱 적합하고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은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48.556(df=24, N=252)$, TLI=.964, CFI=.976, RMSEA=.064 등으로 나타났고,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chi^2=49.806(df=25, N=252)$, TLI=.965, CFI=.976, RMSEA=.063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미미한 수준이나 연구모형에 비해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은 경쟁모형인 부분매개모형에 포함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chi^2(df)$ 차이검증을 이용해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고, $\chi^2(df)$ 차이검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델적합도가 양호하면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한다(김계수, 2011). 두 모형간의 $\Delta\chi^2 = 1.250(\Delta df=1)$ 로, 부분매개모형은 완전매개모형보다 자유도가 1감소했으나 χ^2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경쟁모형	48.556	24	.002	.964	.976	.064
연구모형	49.806	25	.002	.965	.976	.063

모형간의 비교 : $\Delta\chi^2 = 1.250(\Delta df=1)$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최종모형 경로		B	β	SE	C.R
거절민감성	→ 단절 및 거절도식	0.94	0.67	0.15	6.37***
단절 및 거절도식	→ 성적 자기주장	-0.41	-0.47	0.07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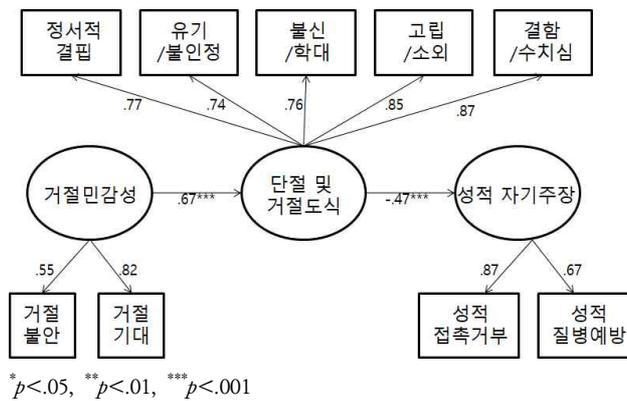


그림 1. 최종모형 경로계수

값은 1.250만 감소하여,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모든 적합도 지수 비교 및 $\chi^2(df)$ 차이검증을 통해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6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거절민감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67, p < .001$)을 미쳤다. 즉,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강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7, p < .001$). 이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강할수록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주장, 즉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최종 선택된 완전매개모형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에 수반될 수 있는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절민감성에서 성적 자기주장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beta = -.32, p < .01$)는 95% 신뢰구간(-.454 ~ -.146)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절민감성이 단절 및

표 7.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N=252)

경로	β	95%CI (Bias-corrected bootstrap)
거절민감성 → 단절 및 거절도식 → 성적 자기주장	-.32**	(-.454 ~ -.146)

거절 도식의 매개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강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게 되어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거절민감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영향을 미치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 사이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를 갖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성교제 경험 및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대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과 친밀감에 있어서 두려움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선행연구 결과(성정아, 홍혜영, 2014; 정윤경, 2004)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타인과 교류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게 되면,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여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따라서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친밀감 형성이 더 어렵다고 전제할 때, 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날까 염려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교류나 자기노출을 어려워할 수 있는 것이다(성정아, 홍혜영, 2014). 이로 인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학생들이 친밀감 형성에 두려움을 가짐으로 인해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 점수가 더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그렇지 않은 여대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관계 빈도와 성적 자기주장 사이의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선행연구(변혜정, 2004)나 성관계 파트너 수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사이의 정적 관계를 보여준 연구(김은수, 2015)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변혜정(2004)에 따르면, 일단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성관계에 놓인 양당사자의 사이가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상대방의 성 욕구에 응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한번 성관계를 응낙했다면 늘 응낙해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은수, 2015; 변혜정, 2004). 따라서 성관계 경험 유무는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경험의 부작용을 고려해볼 때, 여대생들이 처음 성관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올바른 성적 자기주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선경(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관계 경험 여부와 성적 자기주장 사이를 매개하는 다른 변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가 있고, 성관계 경험 여부 혹은 성관계 횟수와 성적 자기주장 사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가 많지는 않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완전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Levy 등(2001)의 거절민감성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중요한 타인에 의한 거절이 예상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의 발현으로 과거의 경험

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만한 상황들만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낮은 성적 자기주장을 하게 된다. 이는 거절 예상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거절민감성보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불안정 애착 성향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중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절민감성, 거절 및 단절 도식, 성적 자기주장 모두를 함께 고려한 모형에서는 거절민감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김나영, 2009, 박희경, 2011)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구를 가짐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성관계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유외숙, 2004; Impett & Peplau, 2002). 이와 같이,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변인들임에 틀림없으나, 거절 및 단절도식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 미치는 거절 및 단절 도식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여대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의 실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거절민감성이 높아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을 상담할 때에는 단절 및 거절 도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점을 교정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대인관계 속 갈등상황에 당면하여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고 여겨 상대방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이들은 생애 초기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지현, 2015). 따라서 상담자는 우선 이들의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들이 발달시킨 심리도식의 내용과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도식과는 다른 상황증거를 찾도록 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내담자가 보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유아진, 서영석, 2017).

다음으로,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대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응낙하게 되는 경우 자존감이 하락하고 우울감을 느끼며 향후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게 만드는 등의 부정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유외숙, 2004). 높은 성적 자기주장을 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성관계에 응하는 여대생들의 경우,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대처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강형진, 2018). 그리고 여대생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상황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성적 자기주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심리적 요인과 그 기제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불안정 애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유외숙, 2004; 이경인, 2015)이 있었고, 성에 대한 통념이나 왜곡된 성지식,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지만(박선미, 송원영, 2012; 손승연, 임성문, 2011;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이라는 변인들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던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거절민감성의 영향력보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의 역할에 대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 경기 지역의 여대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에 있는 여대생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대상의 72.2%가 만 20세 이하인 어린 여대생들로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학생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이성관계에서 제대로 된 성적 자기주장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이 아니라라는 점도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성관계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문항은 모두 자기보고형식을 취했는데, 특히 성적 자기주장을 묻는 문항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성관계 상황을 상상하여 응답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제 성관계를 경험하게 된 후의 응답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비록 익명의 설문이지만 성경험을 묻고 있는 문항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쪽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대상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성교제 경험 여부가 거절민감성이나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만으로는 이러한 차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즉, 이성교제 경험이 거절민감성이나 단절 및 거절 도식의 평균점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거절민감성이 낮거나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쉽게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는지를 본 연구를 통해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

힐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진 (2018).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양성평등의식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진희 (2016).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11).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출판사.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은수 (2015). 여대생의 불안정 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 (2015). 초기 부적응 도식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보영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숙 (2014). 여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 주의조절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35-51.
-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혜정 (2004). '성폭력' 피해 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승연, 임성문 (2011). 성인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관계. 대학생활연구, 17(2), 17-36.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 시사저널 (2011). [2011 한국 대학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비밀스런 성문 크게 열어젖히다.”
- 안하얀 (2009).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주영 (2015).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억제형 대처양식,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7(3), 447-465.
- 유아진 (2015).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적 단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아진, 서영석 (2017).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정서적 단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5), 41-60.
- 유외숙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 모형: 대학생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외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이경인 (2015).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구조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51-567.
- 이난희, 정준식, 송혜숙 (2016). 여대생의 성경험과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3), 414-422.
- 이테일리 (2018). “국민 10명중 8명 ”미투운동 지지한다”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경 (2000).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태 (2017).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의 영향요인으로서 거절 민감성에 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7, 77-102.

- 정예원 (2014). 초기 부적응 도식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연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화, 송원영 (2017). 원하지 않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한국 여대생의 반응 유형 및 특성.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511-518.
- 중앙일보 (2014). 2030 청춘 리포트 - "대학생의 성."
- 표미림 (2014).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겨레신문 (2017). "하룻밤 자긴 좋지" 홍익대 서도 단톡방 성희롱 논란.
- 한겨레신문 (2018). "서울 여성 10명 중 9명은 데이트 폭행 경험했다"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US: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C.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30-258.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327-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Impett, E. A., & Peplau, L. A. (2002).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59-369.
- Levinson, R. W., & Gottman, J. M. (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5-94.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Levy, M., & Davis, K.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93-471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amela, R. G., &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Pietrzak, J., Downey, G., & Ayduk, O. (2005). Rejection Sensitivity as an Interpersonal Vulnerability. in Baldwin, M. W.(Ed.), *Interpersonal Cognition*, The Guilford Press. 66-72.
- Rahim, A., & Bonoma, T. V. (1979).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A model for diagnosis and intervention. *Psychological Reports*, 44, 1323-1344.
- Rickert, V., Sanghvi, R., & Wiemann, C.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178-183.
- Shotland, L. R., & Hunter, B. A. (1995). Women's "token resistant" and compliant sexual behaviors are related to uncertain sexual intentions and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26 - 236.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01-516.
- Thelen, M. H., Vander Wal, J. S., Thomas, A. M., & Harmon, R. (2000). Fear of intimacy among dating couples. *Behavior Modification*, 24(2), 223 - 240.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1차원고접수 : 2019. 1. 20.
심사통과접수 : 2019. 3. 13.
최종원고접수 : 2019. 3. 20.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Yu, Mi Young

Ha, Jung He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rejection sensitivity,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sexual assertiveness, and to find out the mediating role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s well, this study pursu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experience of date and sexual intercours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260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from July to August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connect and rejection scheme.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disconnect and rejection scheme and sexual assertiveness negatively. In relation to the research model, a complete mediating model is more appropriate that rejection sensitivity does not directly affect sexual assertiveness, but indirectly affects sexual assertiveness through disconnect and rejection scheme. Final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experience of date and sexual intercours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few research examined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disconnect and rejection scheme on sexual assertiveness. So it is significant to reveal the mechanisms that influence sexual assertiveness. In addition, these findings can be applied to counsel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female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 with others, inclu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their rejection sensitivity, disconnect and rejection scheme, low sexual assertiveness.

Key words : female college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sexual assertiveness